

I Know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접 수 번 호	
학 교 명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동아리(팀)명	G-nome

1. 우리 동아리(팀) 소개하기

○ 동아리(팀)명 소개

G-nome은 2009년에 창단된 동아리로, 땅의 요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초반, 지리와 우리 국토에 대해 더 폭넓고 깊은 내용을 배우고, 다양한 지역의 문화와 지리를 탐구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10년 동안 동아리 활동이 점점 다양화되고 관련 분야가 더욱 광범위해짐에 따라 현재는 유네스코 학교 동아리의 일원으로서 유네스코와 여행을 주제로 결합한 동아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은 ‘세계 시민으로서 독도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우리 국토 특히 독도 홍보 활동과 세계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참학력 신장에 역점을 두고 이에 관련한 학습은 물론 많은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G-nome의 활동들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의 전체 연간 추진 계획을 바탕으로 진행되지만, 그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실행 준비, 활동 등은 동아리 부장과 차장을 중심으로 모든 부원과 함께 의논하고 상의함에 있어서, 모두 부원 주도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정기모임을 가져 독서 활동 후 토론, 동아리 부스나 홍보 활동을 위한 논의, 이전 활동과 대한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를 통해 동아리 부원들 간의 친목다짐은 물론, 이전 활동을 바탕으로, 보다 긍정적인 이후 계획을 야기, 독도와 유네스코 관련 지식 함양 등의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고, 앞으로도 이 활동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동아리(팀) 구성원

순번	성명	학년	팀	동아리(팀) 내 역할
1	이다은	1	기획	영상 및 독도 배지 제작
2	권소윤	1	홍보	독도 응원 부스 운영
3	김민서	1	기획	독도 체험관 견학 기획
4	김정연	1	답사	이달의 독도인 팀장
5	곽다영	1	홍보	독도 해시태그 이벤트 담당

위 구성원들이 주 2회 정기모임 시간, 다양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타 동아리와 차별화되고 현실성 있는 100일간의 독도 홍보활동이 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 독도체험 활동 소개하기

○ 활동 주제 : I Know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 주제 선정 이유 : 독도는 우리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35년 통한의 역사가 새겨진 우리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독도가 왜 우리땅인지 물어보면 논리적인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들어 우리땅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누구나 독도가 왜 우리땅인가요? 질문을 받으면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I Know that “Dokdo is Korean territory” 를 활동 주제로 선정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 활동 기간 : 18년 5월 2일 ~ 8월 9일(100일간)

(추후 지속적인 활동으로 19년 2월 활동 종료 예정)

○ 추진 방법 : G-nome 담당지도교사와 함께 독도를 논리적인 근거를 말할 수 있게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짐. 아이디어 회의 후 나온 프로그램의 각 학생별 담당자를 선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이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함. 또한 여러 활동 중 어려움이 있으면 주 2회 정기모임의 시간을 마련해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해결하여 동아리원 모두가 만족하고 준비과정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 활동 내용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 2일	독도체험 활동 아이디어 회의	교내 인문사회교실	100일간 실천한 독도체험 프로그램 아이디어 회의 실시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 2일 ~ 5월 9일	독도바로알기 마인드맵 발표	교내 인문사회교실	독도바로알기 학습 및 마인드맵 발표 토론 활동을 통한 독도 학습 실천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 23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답사	독도체험관	독도체험관 방문을 통한 독도 지식 활동 및 독도사랑 함양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 23일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이벤트	서울 일원 대학로 거리	서울 일원과 대학로 거리에서 독도는 우리땅임을 안다는 I Know 해시태그 이벤트를 진행, 독도홍보 활동 실시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6월	독도 홍보 UCC 제작 활동	교내 인문사회교실	통합사회 교과 수행평가와 연계한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홍보하는 UCC를 제작하여 교내 게시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8월	이달의 독도인 판넬 제작 전시	교내 인문사회교실	5월부터 8월(김신열 부부, 안용복, 독도수비대, 이사부)까지 이달의 독도인을 선정하여 홍보 판넬을 제작, 교내 게시하는 활동 실시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5월~8월	이달의 독도인 판넬 제작 전시	교내 인문사회교실	5월부터 8월(김신열 부부, 안용복, 독도수비대, 이사부)까지 이달의 독도인을 선정하여 홍보 판넬을 제작, 교내 게시하는 활동 실시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7월	‘독도란’ 독도 응원 부스	교내 1층	교내 축제 기간 ‘독도란’ 응원부스를 마련하고 독도에게 한마디를 기록해주는 학생에게 수박 화채를 선물함으로서 독도의 응원 메시지를 전함.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8월	독도 뱃지 및 독도 자석 교실 배치	교내 학급 및 특별실	반크의 독도 뱃지 및 자석을 구입하여 교실 및 특별실에 부착하여 독도 사랑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제공
			

날 짜	독도체험 활동 사항	활동 장소	세부 내용
8월	100일간의 독도체험 소감문 작성	교내 인문사회교실	그동안 활동했던 독도 체험 100일간의 기록 소감문 작성 및 추후 활동 계획 수립

○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자료 형태	간략한 내용 소개
1	G-nome ucc	영상물	100일간의 기록을 담은 간략한 UCC
⋮	⋮	⋮	⋮

3. 성과 및 향후 계획

○ 활동 성과

1. G-nome 이라는 동아리 팀명으로 학교 내에서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를 홍보하기 위한 관련 부스를 여러 번 개최했다. 각 부스 때마다 참가자들이 새로운 지식을 알아간다는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주는 등 전교생이 독도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었음.
2. 전교생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물어봤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전교생들이 독도에 대해 여러 관심을 갖게 됨.
3. 무엇보다 독도체험 100일간의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원 모두 독도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지식을 갖게 되었음.

○ 향후 계획

1. 우리학교 내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소재지인 아산 지역의 학생들에게 독도에 대해 알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점점 활동범위를 넓혀갈 생각이다. 특히 계획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한 아산역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주제로 플래시몹을 진행할 예정이다.
2. 또한 아직 우리의 활동은 끝나지 않고 19년 2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독도 지킴이 학교를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해 보다 질 높고 다양한 독도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4. 독도체험 활동 후의 감상

동아리(팀)원	느 낀 점
이다은	항상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주장은 해왔지만 정확한 그 근거와 까닭은 나조차도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체험들을 통해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었으며 더불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하면서 이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지식들을 알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취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
권소윤	독도가 우리땅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체험을 통해 과거부터 우리땅이었다는 것을 알고, 모두에게 대한민국영토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민서	독도 체험관에 갔다 온 후 독도에게 친밀감이 생긴 걸 느낄 수 있었다. 독도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 이익과 왜 우리가 독도를 빼앗기면 안되는지 잘 알게 된 것 같다. 독도 관련 부스를 운영하면서 우리 학교의 전 교생들에게 독도를 잘 알린 것 같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알린 후 전 세계에 알릴 일 만 남은 것 같다.
김정연	외국에선 ‘독도’라는 단어보다 ‘다케시마’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심지어는 독도뿐만 아니라 동해까지 빼앗으려는 일본의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고 g-nome에서 실시한 여러 부스들이 이런 생각을 잘 전달해 준 것 같아 뿌듯했다.
곽다영	독도 관련체험을 하며 원래 독도를 알고있던 것 보다 더욱 더 잘 알게 되었고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5. 건의사항

1. 독도체험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도 독도 지킴이 학교 학생들과 같이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 예산을 확보해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주었으면 한다.
2. 활동 결과 보고를 위해 제출해야할 자료들이 너무 많다. 학생들이 학업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활동 결과 보고를 UCC 또는 보고서 또는 요약서로 대체하여 결과 보고를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3. 독도의 날인 10월 25일을 포함, 독도체험 대회가 개최되면 보다 의미있을 것 같다